

# ‘으랏차차!’ 유동성의 힘… 증시,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코스피 59.81p 오른 2147에 마감  
삼성전자·SK하이닉스 6%대 급등  
“경제재개 기대… 전기·전자 반등  
3분기 고점돌파 시도, 4분기 회복”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81p(2.87%) 오른 2,147.00으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7%나 급등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글로벌 자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부담도 뛰어넘을 만큼 투자심리는 회복된 상태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81포인트(2.87%) 오른 2147.00에 장을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종가 기준 2100선 돌파는 지난 2월 25일(2103.61)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16조775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은 1조3060억원을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1조1367억 원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외국인도 2062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 ◆ 돌아온 코스피 대장주

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종목은 단

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각각 6.03%, 6.48%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7% 이상 상승, 코로나19가 확산할 무렵인 3월 6일(장중 고가 5만7200원) 이후 약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한때 8만9200 원까지 올라 지난 3월 10일(장중 고가 8만9400원) 이후 석 달 만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두 종목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나란히 급락했다.

이후 코스피가 반등하는 가운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상승장에서 소외된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4~5월 두 달간 코스피가 15.67% 상승하는 사이 삼성전자는 6.18% 오르는 데 그쳤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2.16% 하락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 며칠간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앞서 코로나 사태로 지연된 수요가 반영되면서 하반기 관련 종목의 실적 회복에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 “당분간 상승세 지속”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기대보다도 가파르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분간 조정은 없을 것으로 봤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풍부한 유동 자금이 주식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살포하고 있다”면서 “실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7조달러를 시장에 풀었는데 이는 미국 1년 국내총생산(GDP) 22조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밸류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PER 기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코로나 2차 확산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 대응이 일상화됐고, 경제 활동은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재개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밸류 부

담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내 금융시장의 베어 마켓(하락장) 우려는 찾아든 모양새다. 3분기 고점 돌파 시도하고, 4분기에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금 은 역사상 가장 짧고 굵은 리세션(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견제 없는 정책은 시장의 복원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하반기는 기업 실적 및 경기 개선의 시차 문제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과거 금융위기 사례와 같이 밸류에이션의 팽창이 먼저 진행되고, 기업이익과 같은 실물 지표의 개선이 뒤따라 오는 패턴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3분기경 기업 실적 개선 가시화로 전 고점 돌파 시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4분기는 내년 경기,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태홍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정의당 청년본부와 청년학생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코로나19에 맞서는 청년학생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해고 및 임금체불 금지, 차별 혐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대학생 등록금 환불, 정부가 나서야”

### 개원 앞둔 21대 국회 ‘반환’ 주장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민생법안에 등록금 반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의당 “등록금·방세·無알바 3중고 3차 추경에 반영, 국가서 해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도 잇따라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른바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환불 주체는 ‘국가 또는 대학’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승진 미래통합당 교육수석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 교육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이어가며 등록금 환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대학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부도 힘을 보태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강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ihj@

## 넥슨, 글로벌 엔터기업에 1.8조 투자

### 비전 공유사 물색중… 경영참여 안해

넥슨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를 투자한다.

넥슨 일본본인은 2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15억 달러 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오웬 마호니 넥슨 최고경영자(CEO)는 “넥슨이 보유한 현금을 주요 엔터테인먼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훌륭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강력한 지식재산권(IP)을 만들어내고 유지해 온

넥슨의 비전을 공유하는 회사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어느 회사에 투자할 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투자회사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넥슨은 올해 초 자회사 네오플에서 1조5000억원을 벌린 바 있다. 최근 1년 여 동안 약 2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해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넥슨에서 또 다른 인수·합병(M&A)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있었지만, 투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



김정주 NXC 회장.

/NXC

## 마스크 ‘수급 안정’… 수출규제 완화엔 ‘신중론’

### 5부제 폐지… 주 3장 구매가능

5부제 폐지 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출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 시장을 좀 더 지켜본 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적마스크 5부제가 끝난 지난 2일 오전 광화문 일대 약국은 일상과 다른 없는 모습이었다. 약국 출입문엔 ‘공적 마스크 판매 중’이라는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다.

지난 3월 5부제 시행 초기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 줄도 ‘마스크 매진, 문의 사절’이라는 경고문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간히 보이는 손님들은 저마다 재빠르게 약사에게 신분증

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구매해 제 길 을 갔다.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최모(27) 씨는 “마스크를 미처 챙겨 나오지 못했을 때 더러워졌을 때 요일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어 난감했었는데, 이젠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며 활짝 웃었다.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 씨는 “5부제가 폐지된 첫날에 손님들이 약국을 많이 찾았다”며 “저번주 월요일과 이달 1일을 비교해보면 마스크 판매량이 1.5배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마스크가 없어서 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보관해 놓으려는 손님이 대부분”이라며 “마스크 수급은 이제 좀 안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수출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경기도화성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출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환영이다”면서 “고용 창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혜택, K-브랜드 형성 등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 국산 마스크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 완화를 원하는 상황이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국내외 종합적인 마스크 수급 상황과 감염병 확산 추이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태홍 수습기자 pth7285@